



손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인정주의의 득과 실 - 조재훈(프리랜서 작가)

테마기획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포용적 언어 환경을 위한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모두가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가현욱 교수

시각장애 청소년의 금융생활, 생활금융 교과서가 알려드립니다!

목차	02	
점자로 말해요	03	● 떡국
시선집중	04	● 인정주의의 득과 실 조재훈(프리랜서 작가)
테마기획	06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포용적 언어 환경을 위한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08	● 모두가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가현욱 교수
포커스	10	● 시각장애 청소년의 금융생활, 생활금융 교과서가 알려드립니다!
함께 사는 이야기	12	● 자석의 신비 체험 류재성(시각 1급_서울특별시 종로구)
월드 리포트	13	● 사진가 제임스 데이, 신부에게 손으로 느끼는 웨딩촬영 사진 선물해 ● 일본, 시각장애인 유권자 위해 카세트 테이프 배포!
뉴스앨범	14	● [성명서] 국민 ‘희망과 감동’ 공영방송사의 의무 저버린 KBS,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하라! ● 2019년 직업훈련생들을 환영합니다!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자립생활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16	● 전시회나 공연장, 극장에 갈 때

2월은 설 연휴가 있는 달인데요.
설에는 떡국과 함께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떡국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 ○○ ●● ○● ●● ○○
●● ○○ ○○ ○○ ○○ ○○
○● ○○ ○○ ○○ ○○ ○○

떡국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 일람 표

자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받 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쓰받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	ㅐ	ㅒ	ㅖ	ㅘ	ㅙ	ㅚ	ㅜ	ㅠ	ㅓ	ㅕ	ㅗ	ㅛ	ㅜ	ㅠ	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 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 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 ○● ○●	○● ○● ○●	○● ○● ○●	○● ○● ○●	○● ○● ○●	○● ○● ○●	○● ○● ○●								
숫 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어	영어시작	끝	대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포스트로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ㅆ, ㅈ, ㅊ, ㅌ, ㅍ' 다음에 약자 'ㅇ'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인정주의의 득과 실

조재훈(프리랜서 작가)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 백의민족이니 배달민족이니 하며 우리 국민의 순수성을 자랑하던 때가 엇그제 같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도 다문화인임을 내세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어느 한 쪽으로 관심을 모으는 것 같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을 말할 때 인정이 많다고 평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과연 인정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이나 생각 혹은 마음이나 남을 배려하는 심정의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사람 인’ 자에 ‘뜻 정’ 자인 한자의 뜻을 살피면 이 단어의 뜻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람 인’ 자는 사람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산다는 의미로 작대기 돌을 버티어 세워놓은 모양이다. 그리고 ‘뜻정’ 자는 ‘마음 심’ 변에 ‘푸를 청’ 자를 써 해석의 폭을 넓게 가진 글자이다. 한자를 만드는 데는 6서란 여섯 가지 원리가 있다. 그 6서 가운데 형성 문자나 회의문자는 한자의 기본인 214개 부수의 뜻과 소리를 서로 붙여 만든 글자이다. 무학 대사가 파자점을 쳤다는 것도 파자식 한자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이 부수의 의미와 글자 모양을 가지고 문점을 하는 사람에 맞게 해석하여 점을 쳐준 것이다. 그런데 인정이 있는 사람이란 것은 가난하거나 미개한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품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래서 백인보다 흑인을, 유럽인보다 아프리카인들이 인정이 많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이 많다는 말은 아직도 우리가 가난하고 미개하다는 평이 될 수 있으니 어쩔 것인가?

작은 나라라는 일로 열등의식을 가지게 할 때가 많다.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해가지지 않는 나라 대제국이었던 영국도 그 본토와 인구는 우리나라 정도에 불과하였다.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도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남북 분단에 의해 반쪽짜리가 되었어도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것을 보면 그 우수성을 자랑할 만하다. 그러므로 가난과 미개에 의해 생긴 인정이라면 피해야 되겠다. 부유한 문화인으로서 인정을 베풀 수 있다면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같은 선심을 베풀어도 외국인들에게는 친절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인정이 많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한 과제가 되겠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있다는 사람이 되기를 좋아하고 있다. 우리는 박정하다는 평을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잘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권하는 한 잔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 정이 모든 사고의 근원은 아닐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가 <사돈의 8촌>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을 때도 서로 친척이 될지 모르는 사람을 박절하게 고발하지 못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선진 국민들의 철저한 고발정신을 놀라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발정신에 의하여 선진문화가 유지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양인들처럼 위법자를 고발하였다가 복수를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사실 고발을 당하여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 복수를 했다는 사건도 종종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는 재판에 불복하여 법원 건물이나 재판장에게 테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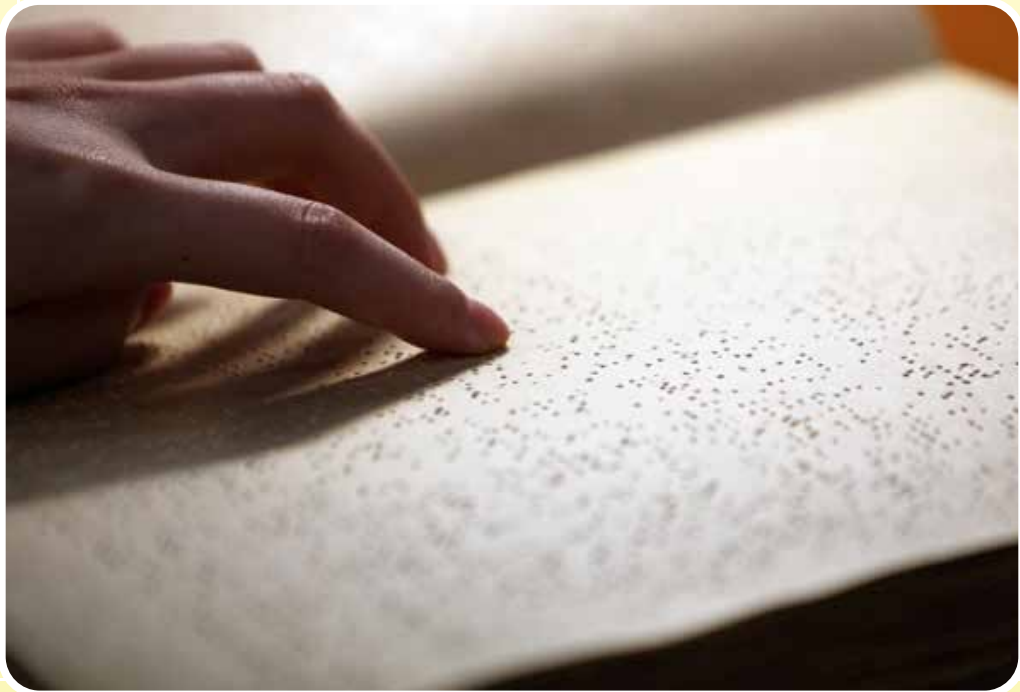
저지르는 일도 있지 않은가? 물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것이 확실하다.

아니, “범죄자들이 가중처벌을 두려워서 복수심을 버릴 줄 알아?”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범죄자들은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별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 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아픔들은 감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사회정의를 살아있어야 누구나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들과 같은 약자들에게 사회정의를 더 필요하지 않은가? 주변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부당하게 많은 손해를 보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인정에 약하다고 한다. 대개 소외된 환경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수가 많다. 그렇게 하다가 마음은 물론 재물까지 몽땅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되면 재산에 사람은 물론 건강과 인간간의 믿음까지도 잃게 된다. 그 재산과 지인 그리고 건강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번 입은 인간 간의 불신의 상처는 치유가 어렵다. 어떻게 시각장애인처럼 형편이 곤란한 사람을 이용해먹겠느냐고 한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렇게 속이는 것이라고 하게 된다. 과연 자기의 본의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업에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떤 악덕인은 남의 약점을 노리고 다니고 있다. 민사재판은 마치 이러한 악덕한 사람들의 무대를 만들어 주는 듯 보일 때가 있다. 채권자는 분명히 채무자에게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만 재판관은 또 다른 재산 관리인으로 나설 때도 있으니까. 따라서 선부론 인정주의나 온정주의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 생명과 재물이 귀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마는 우리 시각장애인들만큼 어렵게 그것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랴?

성경에는 죄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자님은 수많은 한자 가운데 어느 글자를 택하시겠느냐고 하니 ‘용서할 서’ 자를 짚으셨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서의 용서는 인정과는 다른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인정주의가 지나치면 공과 사도 구분 짓지 못하여 나랏일까지 그르칠 수 있지 않은가? 메마른 인정에 인간들이 잘 살아가려면 경전이나 성인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민들이다. 따라서 보통사람들의 수준에서 분수에 맞게 살아갈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 복잡한 세상에 다른 일도 많은데 그런 일까지 신경을 써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정에 메말라하고 있던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그것을 미끼로 낚시를 드리우는 악덕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경계해야 하겠다. 이렇게 인정주의의 득실을 깨우친 뒤에야 우리도 선진국민의 대열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포용적 언어 환경을 위한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점자 규격 표준화와 점자 교육 환경 조성, 점자 출판 시설 지원 등을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점자법'에 따라 수립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비시각장애인의 점자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모두 점자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에는 3대 추진과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과제는 점자 규격 표준화 방안, 조례 표준안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생활용품이나 공공시설을 좀 더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화장품, 지하철 등에 적용할 점자의 규격(점자 크기, 높이, 간격 등) 표준화 방안을 연구해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다양한 점자 교재 개발, 신속한 보급으로 점자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법’에 따라 점자가 한글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문자로 인정받은 만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인데요. 공공시설, 공적 인쇄물 등의 점자 표기 실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능력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장애 유형과 장애 발생 시기, 학습 목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점자 교재를 개발, 온라인 상에서도 점자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사에게 양질의 점자 교과용 도서를 좀 더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점자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점자 학습 보조 자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점자 출판 시설 지원 및 문화유산 전시 등 점자 사용 촉진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각 지역의 점자 출판 시설(점자 도서관)의 고른 발전과 여건 개선을 위해 점자 제작 및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점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점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점자 메뉴판, 점자 스티커 등을 보급하고 점자 문화유산 전시와 점자 디자인 경진대회 등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은 문자 생활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언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매년 점자 발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성과를 점검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점자가 활성화되고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점자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랍니다.

모두가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가현욱 교수

디지털 시대의 일상생활, 편리하신가요?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디지털 기술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개인에게 딱 맞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가현욱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의료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 가현욱입니다. 저는 주로 장애인 보조공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연구 주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Q. 그렇군요, 의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독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의료 인공지능이라 하면 보통은 임상 의학을 의미합니다. 기초적인 바이오 사이언스(science),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빅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 의료 노화 방지 기술을 연구 한다는 것 등이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상자에게 센서를 설치해 생활패턴부터 소셜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삶을 파악해 디지털 헬스케어하는 것이죠.

Q. 시각장애인으로서 인공지능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분야를 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저는 한국에서 교육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이후 석사 과정에서 재활공학 분야를 전공하게 되었는데, 이름만 들으면 모든 전공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재활공학을 공부하는데 컴퓨터 공학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석사 과정 후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 분야를 전공하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컴퓨터공학, 재활공학에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그렇군요, 카이스트에 오시기 전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교수 생활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한국으로 오게 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A.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장애인이나 노령 인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 기술을 바탕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공지능 쪽의 전문가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2000년 대 이후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늘어났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던 이유가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 부재가 이유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을 축적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Q. 그렇다면 미국에서의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A. 특별한 에피소드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 전체가 에피소드였기 때문인데요, 저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할 당시, 교수님들께도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예를 들면 판서를 하실 때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되는데, 시각장애인인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판서를 하면서 읽어주시기도 하였고, 시험을 볼 때에도 조교를 붙여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공의 특성상 그래프나 다이어그램 등 무언가를 그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항상 최선을 다해 제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하나의 에피소드이자 큰 추억입니다.

Q.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시면서 바라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까요?

- A. 현재 국내 · 외로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기술이 각광받는 추세인데요, 장애인 서비스는 무언가가 구축되고 나면 이후에 배려 차원 등으로 마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서 사후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국내의 기술 분야 개발자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처럼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설계할 때부터 취약계층의 니즈를 알고 적용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만족하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의 연구가 발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개인의 삶에 맞춘 기술을 적용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각장애 청소년의 금융생활, 생활금융 교과서가 알려드립니다!

시각장애 청소년들은 돈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이 시각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금융 교과서를 점자도서와
음성도서로 발간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점자도서와 오디오북 형태의 '생활 금융 교과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점자와 음성을 통해 시각장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요.

초등학생들에게 맞춘 슬기로운 생활금융에서는 돈이 소중한 이유와 돈이 주는 편리함,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맞춘 생활 금융도 있는데요. 중학교 생활 금융 교과서에서는 합리적인 금융 자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융 관련 지식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금융 생활의 의미와 개인 재무를 관리하는 능력, 또 다양한 금융회사의 기능 등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생활 금융에서는 금융생활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 저축과 투자 등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생활금융 교과서에 나오는 표와 그래프 등은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점역·음성화가 가능하도록 서술식으로 편집했으며, 지루하고 단조롭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초·중·고 각 교과서 별로 다른 성우(3인)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 청소년들이 본인이 필요한 주제를 발췌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오디오 북을 단위별로 구분하여 제작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이 교과서는 많은 시각장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맹학교,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복지관,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등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배포되었는데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 시각장애인 재활통신망 홈페이지(web.kbuwel.or.kr) 등에도 게재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시각장애 청소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자석의 신비 체험

류재성(시각 1급_서울특별시 종로구)



살다보면 여러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한다. 나 또한 몇 번의 신비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내가 경험한 일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을 이번 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야구 선수 중에서 투수는 100개 정도 공을 던지면 선수 보호 차원에서 마운드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냉찜질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온찜질을 한다. 발목을 빼게 되면 해당 부위가 부어오르게 되는데, 붓기가 빠지기 전까지는 냉찜질을 하고 붓기가 빠지고 나서야 찜을 놓고 온찜질을 한다. 이처럼 인체는 기혈의 흐름이 있는 소우주이며, 음양을 따는 하나의 자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글을 통해 내가 소개하려는 것은 음양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석에 대한 이야기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마그네스’라는 이름의 양치기 목동이 ‘자석요법’을 발견했다고 한다. 어느 날 그는 쇠 지팡이가 어떤 바위에 끌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쇠를 끌어당기는 바위를 그의 이름을 따서 ‘마그넷’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자력을 ‘마그네티즘’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원전 200년께 희랍의 유명한 의학자 갈렌이 자석을 이용해 설사를 치료한 것을 자석요법의 출발로 여기고 있다. 중국에서는 2천 년 전부터 자석을 삶아 먹거나 자석을 잘게 썰어 부치거나 귓속에 자석을 넣어 난청을 치료하는 등 병을 치료하는데 자석이 사용되어왔다. 옛 중국의 의학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또 11세기경에 아랍의 한 의사가 자석으로 비병, 강병, 수증, 대머리를 치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또 19세기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파스퇴르가 포도주를 자석 옆에 놓아두었더니 더 빠른 속도로 발효되는 것을 관찰했다고 한다. 1815년 파리에서는 자석치료학회가 설립되었고, 2차 대전 중 소련은 자장과 자석 고약을 사용하여 상처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였다. 종전 후 일본에서는 각종 자석치료기구를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에 자석을 체표에 첨부하는 치료법을 개발하였다. 최근까지도 자석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이어지고 있다. 각국의 학자가 자석요법을 연구하여 혈행 촉진, 혈압강화, 근육이나 건의 반사결절의 조기치료 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대한 작용 등등 자기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자석의 자기를 침구치료에 이용하려는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미국의 과학자 알버트 로이 데이비스는 낙시질을 하면서 우연히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 한 통에 있는 지령이들은 암전히 영겨 있는데, 다른 통에 들어 있던 지령이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일부 지령이들은 종이통을 뚫고 밖으로 나가 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주변을 살펴보니 지령이 통 옆에 커다란 자석이 놓여 있었다. 자석의 N극은 암전한 지령이 쪽에, S극은 요동을 치는 지령이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자석에 대해 더 실험해보고 싶었다. 이번에는 달걀의 부화 속도에 자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신기하게도 S극에 노출되었던 달걀이 더 빨리 부화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석은 부화속도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S극의 영향을 받아 부화한 병아리는 성장 속도도 더 빨랐고, 매우 호전적이었으나 일찍 죽었다. 이에 비해 N극의 영향을 받은 병아리는 늦게 부화하고 덩치가 작았으며, 비교적 암전하고 더 오래 살았다.

실제로도 치료된 사례가 여럿 있다. 당뇨병 발가락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던 환자에게 자석을 붙였더니 썩은 듯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 당뇨병 대퇴 동맥에 혈액 순환이 안되던 환자에게 자석을 붙였더니 혈행 개선이 잘 되었다는 사례도 있다. 병원에서 치료가 안되던 중이염을 삼초보법으로 치료한 경우도 있고, 스스로 자석을 이용해 자가 치료를 하여 몸이 호전된 경우도 많다.

자석의 쓰임이 그 뿐일까, 자석은 고속철도에도 사용되며 하수도가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가는 것에도 쓰인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자기장을 진단과 치료에 광범위하게 응용하고 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진단법이나 근전도 검사에도 자기장을 이용한다. 또한 통증 치료를 비롯해 관절염·염증성질환·두통·불면증·순환기질환·스트레스 치료 등에도 자기장이 쓰인다. 심지어 자기장은 골절된 뼈의 유합 촉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석치료의 원리가 어렵기는 하지만 인체의 흐름과 우주의 흐름, 자기장의 흐름이 일맥상통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최고의 치료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실한 만큼 무분별한 사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석치료를 접한 지 벌써 십 수 년이 되어간다. 이제야 어렵풋하게 자석치료를 통해 우주의 원리가 보이는 것 같다. 자석치료를 더 연구하여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다. 자석에 담긴 우주의 원리만큼 크고 넓은 소망이다.

사진가 제임스 데이, 신부에게 손으로 느끼는 웨딩촬영 사진 선물해



호주 시드니의 결혼 사진가 제임스 데이가 전문 스튜디오와 협력해 시각장애인 신부에게 특별한 웨딩촬영 앨범을 선물했습니다. 이 앨범은 특수 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앨범인데요, 유전 질환으로 시각을 잃은 신부는 자신의 결혼식 당시 모습을 촉각 앨범과 결혼식에 사용했던 열 개의 향수, 천 조각으로 느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촉각과 향기로 자신의 결혼식을 그려볼 수 있는 앨범, 시각장애인 신부에게 커다란 추억이 되었길 바랍니다.

일본, 시각장애인 유권자 위해 카세트 테이프 배포!



일본 혼슈 중남부의 야마나시현은 1월 27일 새로운 지사를 뽑는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선거를 약 1주일 앞두고 야마나시현은 각 유권자의 집으로 선거 공보 책자를 보냈는데요, 여기에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카세트 테이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라디오가 없어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CD도 배포되었는데요, 야마나시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선거 공보물은 현립 점자 도서관 등에도 비치한 후 이를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QR코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공약을 알 수 있는 공보물이 제작되길 바랍니다.

[성명서] 국민 ‘희망과 감동’ 공영방송사의 의무 저버린 KBS,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하라!

—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 라디오방송 KBS 제3라디오, 과연 현실은 그러한가? —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영방송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하고, 사회 환경 감시와 비판의 언론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KBS 제3라디오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일상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폐지·변경하는 등 공익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폐지, 〈우리는 한 가족〉의 시각장애인 MC 하차,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늘의 신문〉 프로그램 폐지, 〈사랑의 가족〉 프로그램 방영을 비인기 시간대로 변경, 장애인 대표방송 〈내일은 푸른 하늘〉 재방송 편성 폐지 등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시청약자의 정보접근권을 훼손시키는 방송 운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장애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에 앞장서는 〈내일은 푸른 하늘〉, 〈사랑의 가족〉은 지금까지 방송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대표적 장수 프로그램으로 장애계에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1981년 4월 13일 제1라디오에서 첫 방송 된 이후 2003년 제3라디오로 이관되었고, 제1라디오에서는 매일 밤 12시부터 1시까지 재방송으로 편성되어 유지되었다. 하지만 작년 10월 KBS는 사전 공지도 없이 〈내일은 푸른하늘〉의 제1라디오 재방송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 늦은 시간 재방송으로나마 방송을 들던 전국의 청취자들은 이마저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편성이 유지된 제3라디오 채널은 전국에 방송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1993년 5월부터 방송되던 지상파 유일의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 〈사랑의 가족〉의 방송 시간을 2017년 6월부터 시청이 어려운 목요일 오후 1시로 변경하여 시청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KBS의 결정은 더욱 아쉬운 상황이다.

KBS는 올해 방송지표로 ‘희망과 감동, KBS가 함께합니다’를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그 ‘희망과 감동’ 안에는 장애인은 없는 것 같다. 작년 초 있었던 평창패럴림픽에서도 KBS는 올림픽과 비교해 중계 편성시간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 중계를 확대한 바 있으며, 올림픽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계의 비판을 받았다. 그 이전에도 수어방송 확대, 평등권에 기반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건의한 바 있지만 개선된 사항은 ‘여전히’ 없다.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도 모두가 평등하게 방송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존만 못하면서 장애인의 방송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우리는 KBS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KBS는 〈내일은 푸른하늘〉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1라디오에 정규편성 하라

둘째, KBS는 〈사랑의 가족〉 프로그램을 시청 가능한 시간대로 편성하라

셋째, KBS는 장애인 MC와 출연자들을 대폭 늘려 사회참여를 보장하라

2019년 1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2019년 직업훈련생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2월 1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2019년 안마창업훈련과 전문헬스키퍼 양성 훈련에 참가하는 훈련생들의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안마창업훈련생은 모두 10명으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근육학, 마사지, 침술 등의 훈련과정과 창업 관련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또한 8명의 전문헬스키퍼훈련생들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딥티슈-림프마사지, 아로마-인사이트 등 헬스키퍼 맞춤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유익하고 즐거운 훈련을 마친 뒤 안마사와 헬스키퍼로 성장할 훈련생들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자립생활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중도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립생활교육은 후천적 원인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중도시각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과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재화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점자교육, 보행교육, 일상생활훈련, IT교육, 사회응용훈련 등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및 중식비는 무료이며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02-950-0153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니, 주변에 자립생활교육을 받고자 하는 중도시각장애인이 있다면 많은 추천 바랍니다.





전시회나 공연장, 극장에 갈 때

시각장애인은 영화나 스포츠 관람, 전시회, 공연 보기 등과는 아주 거리가 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관람하는 안내자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시각장애인도 비시각장애인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든지 볼거리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보통 화면해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시회장이나 공연장은 공연물에 따라 매우 어두운 환경이거나 많은 소리가 겹쳐져 청각 의존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평소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인파 속에 부딪히지 않게 안내하는 사람보다 반 보 정도 뒤쪽에서 걷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전시회에 갔을 경우는 전시회 공간을 함께 천천히 둘러보며, 작품 설명을 해주시고, 특별히 촉각을 활용한 전시회라면 전시물 하나하나마다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돕습니다.

공연장에 갔을 때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대 배경이나 주변 상황을 미리 설명해 주시면 공연을 즐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I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손으로보는세상 2019년 2월 223호

발행일 2019년 2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홍순봉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